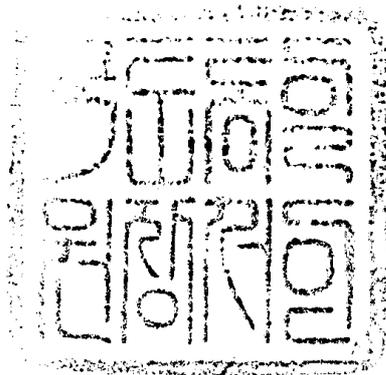


3421
340, 2011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査研究—社会

金日成主体思想研究



} 주필사상
개방성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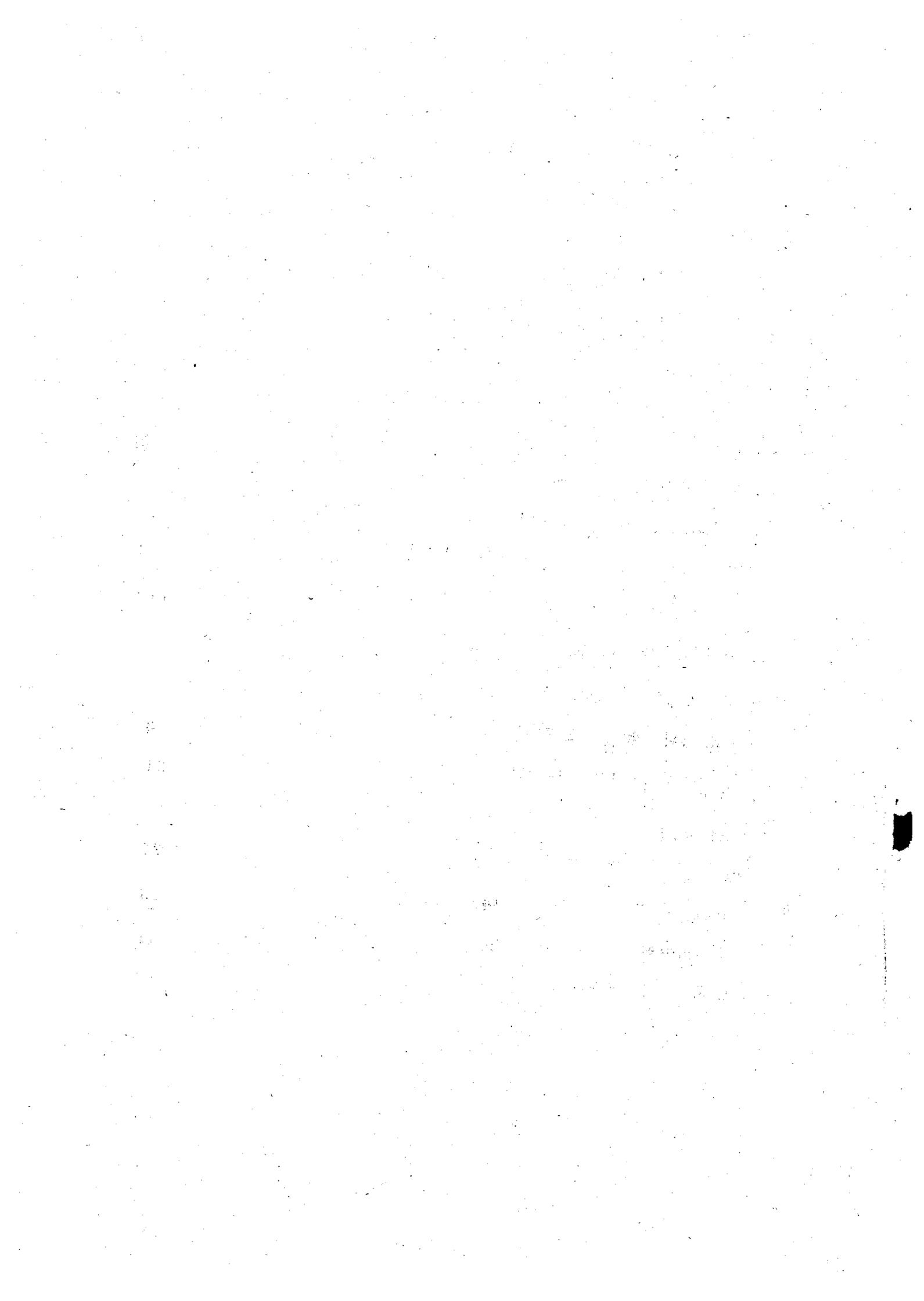
32

研究執筆 刊行責任 曹 淮 煥 (社会文化研究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

1 . 問題의 提起	3
2 . 主体思想의 形成過程	4
가 . 主体思想의 紀元造作	4
나 . 主体思想의 萌芽	5
다 . 主体思想의 形成	6
3 . 金日成 主体思想의 意義	8
가 . 主体思想의 語義	8
나 . 主体思想과 맑스 - 레닌主義	9
다 . 主体思想의 理論體系	13
4 . 主体思想의 具現	14
가 . 主体思想의 絶對化	14
나 . 主体思想의 自主路線	15
다 . 主体思想의 自立路線	17
라 . 主体思想의 自衛路線	18
5 . 主体思想의 效果와 逆效果	21
가 . 主体思想의 效果	21
나 . 主体思想의 逆效果	22
6 . 結論 및 展望	25
가 . 主体思想의 虛構性的 逆機能	25
나 . 主体思想의 将来	26



1. 問題의 提起

<p>(1) 形成過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싹트기 始作한 時期○ 形成된 時期
<p>(2) 意義와 体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用語의 語義○ 다른 思想과의 關係○ 理論体系
<p>(3) 作用 및 効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具現方向○ 作用効果
<p>(4) 効果斗 逆効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創造性 發揮与否○ 自主性 發揮与否
<p>(5) 将来展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虛構性的 逆機能○ 變質 可能性

2. 主体思想의 形成過程

가. 主体思想의 紀元造作

(1) 1920年代 抗日 遊擊鬪爭時부터 確立되었으며 8·15解放後 朝鮮勞動黨 創黨精神의 母體였다고 主張

—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출발점으로 된 것은 1926년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이었다. …… 타도제국주의 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우리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해왔다. …… 우리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의 찬란한 결실이다”

(노동당 창당 30주년에 즈음한 김일성 연설 - 1975.10.10)



○ 1926年은 金日成의 나이 14歲로서 革命鬪爭不能

○ “打倒帝國主義同盟”이란 없었음.

— 이는 75年 10月 10日 金日成 演說에서 처음으로 抬頭된 單語임.

나. 主体思想의 萌芽

(1) 主体思想이 싹트기 爲한 國際環境

- 韓國戰 休戰協商時 (1953.3.9) 蘇聯首相 말렌코프는 東西 兩體制間의 平和共存과 平和的 競争宣言
- 1953.3.15 말렌코프, 平和政策 再闡明
- 1954.4 印度支那 平和協商을 成功시킨 제네바 極東會議, 를 거쳐 흐루시초프 內閣에 이르러 平和共存 路線確立
- 1955.4.印度, 中共主導下의 新興勢力 29個국이 "반동" 會議 開催
- 美·蘇 兩陣營의 弱화, 中立的 乃至 第3勢力 擴大

(2) 金日成, 처음으로 "主体"를 言及

- "유감이지만 우리의 선전사업은 많은 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졌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결함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업의 주체이다" (김일성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12.28)
- 但, 이때는 "主体"라고 했을뿐 "主体思想"이라고表現하지 않았으며 주로 宣傳과 教育에 있어서의 主体를 다루고 있었음.

다. 主体思想의 形成

(1) 中·蘇 紛争에 幻滅, 中立陣營 接近

中·蘇 紛争에 幻滅	中立 国에 接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共産党 20次大会에서 흐 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演說 (1956.2) — 蘇聯의 对中共 援助中斷 (1957) — 中·蘇 이데올로기 論争激化 (1958-9) — 中·印 紛争으로 中·蘇 敵 対化 (1962.10) — 큐바危機로 中·蘇 繼續 紛糾 (60.11) — 中共의 核実験으로 中·蘇 反目 (6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北韓地域 撤収 (1958.10.26) — 스카르노, 北傀訪問 (1963.11) — 최용진, 亞·阿 5個国 訪問 (에집트, 알제리아, 말리, 가나, 캄보디아)(1963.11.12-12.23) — 金日成, 인도네시아 반동會議 10周年 紀念式 參席 (1965.4.9-21)

(2) 自主路線 宣言 (1966.8.12), 主体思想 確立

—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당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55년에 우리당은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였다. 1956년

에 그들은 당의 자주로선에 정면으로 항거하여 나섰다. ...
국제관계에서도 우리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사상
에서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 이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매개 나라의 실정은 그나라 당이 잘 안다. 남이 더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나라 당이 책임지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바로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 두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1 .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 2 .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 3 .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 4 .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 5 .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
- 6 .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이다.
- 7 .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 8 .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 공동투쟁을 강화하자.

(자주성을 옹호하자. 1966.8.12 로동신문 사설)

3. 金日成主体思想의 意義

가. "主体思想"의 意義

(1) 主体 : 主觀 (Subject)

主体性 (Subjectivity)

- 主 觀 : 客觀에 對立되는 말
- 主体性 : 存在論的 : 倫理的 : 實踐的 意味에서 意識과 身體를 가진 存在者, 行爲하며 活動하는 個體的 發動者 (哲學大辭典, 學園社, 1970, 「主觀」, 「主体性」條)



따라서 우리 側의 哲學으로 用語를 確定하자면 "主体性的 思想" (Thought of Subjectivity)이라 함이 正確하겠음. 어떤 學者들은 "Ideology of Self-reliance"라고 말하는 學者도 있음. (Nena Vreeland & Rinn Sup Shinn,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1976, P. 132)

나. 主体思想과 맑스-레닌主義

(1) 北傀가 当初에 떠받들던 思想은 맑스-레닌主義였음.

— “맑스-레닌주의는 혁명투쟁에서의 지침판입니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모든 사물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선집, 5권, 1965, 434 페이지)

— “맑스-레닌주의는 노동계급과 피압박 근로대중의 세계관이며 해방의 무기입니다.”

(김일성선집, 5권, 1965, 237 페이지)

— “만일 노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가 제 때에 혁명투쟁의 강유력한 무기인 맑스주의를 국제노동계급에게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속에서 헤매었을 것이며 국제 노동운동은 뚜렷한 지도적 지침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227 페이지에 인용된 김일성의 말)

— “만일 레닌이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를 새로 내놓고 그것으로 로씨야 노동계급을 무장시키지 않았더라면 로씨야에서 10월 혁명은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10월의 산아인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상계 철학사전, 220 페이지에 인용된 김일성의 말)

(2) 北傀는 1955年부터 漸次 "主体"를 主張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 선전 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김일성연설, 1955.12.28)
-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 (김일성 군사대학 제 7기 졸업식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1963.10.5)
-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 (언어학자들과 한 김일성의 담화, 1965.4.14)
- 기타

(3) 北傀는 1966年8月부터 "主体思想"을 云謂

-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 1966.8.12)
- "남조선에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위하여 투쟁하자" (로동신문 사설, 1966.9.22)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4기 제 1 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 12.16 김일성이 발표)

(4) 드디어 北傀는 主体思想을 唯一思想化 시켰다.

- "주체사상은 우리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근본사상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당의 사상이다"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579 페이지)

(5) 여기서 맑스-레닌主義와 "主体思想"의 比重이 問題가 된다.

- "주체사상의 요구의 하나인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정치사전, 사회과학원 출판사, 1973.1058 페이지)

-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었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시대의 로동제급의 혁명사상이다" (정치사전, 1058 페이지)

(6) 드디어 두 思想은 比重은 같고 完全한 一致는 안되는 것으로 落着된다.

- ".....우리가 하여놓은 것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우리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
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 놓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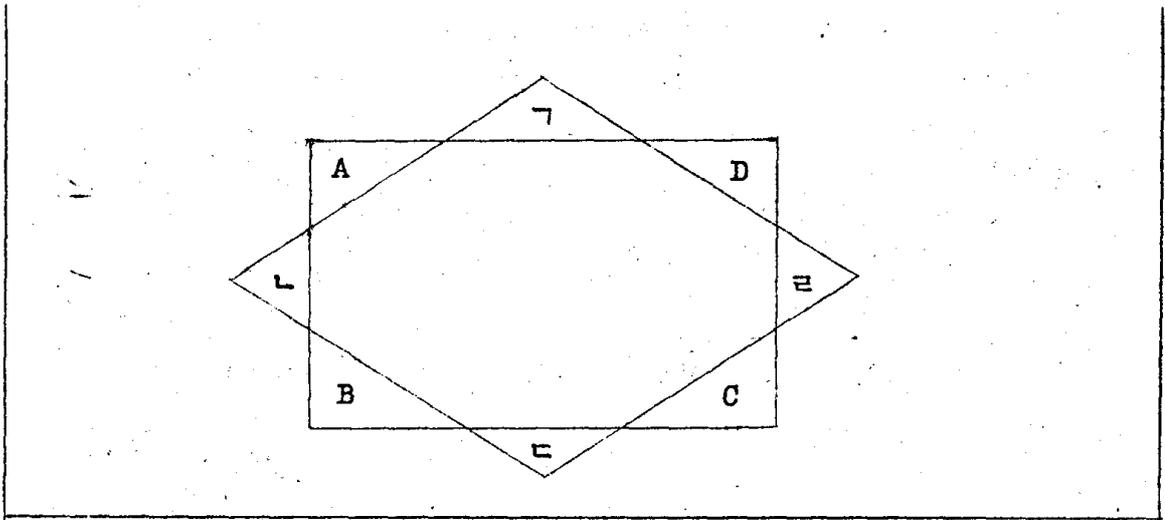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57-8 페이지)

(또는 정치사전, 1058 페이지)

- “우리나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영광스러운 조국이다.
……조선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된 것은……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고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조직, 령
도하시였기 때문이다 ” (정치사전, 1059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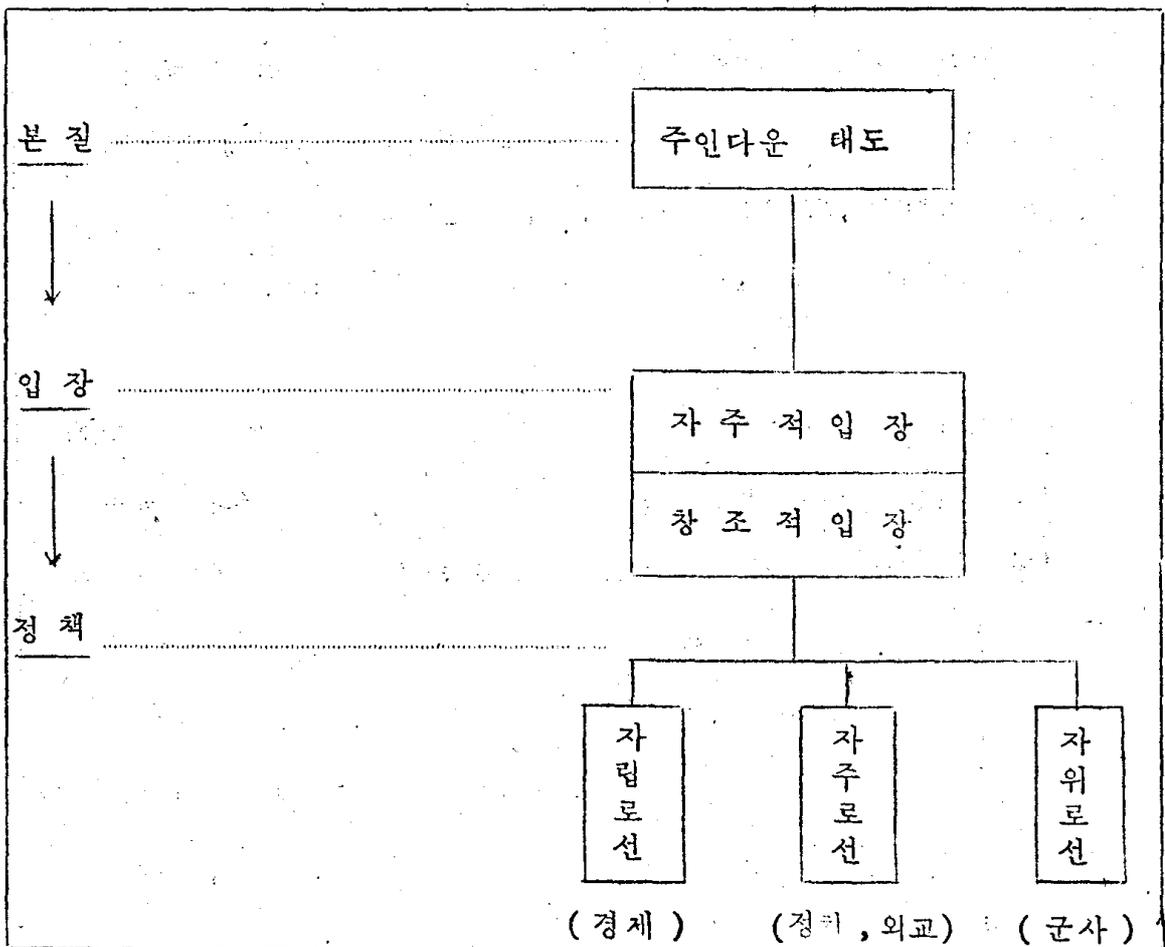
(7) 따라서 두 思想을 比較하는 圖表를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圖表化할 수 있다.

- 여기서 정 4 각형은 맑스-레닌主義이며, 같은 넓이의 마름
모꼴은 “主体思想”이 된다.
- 主体思想의 ㄱ, ㄴ, ㄷ, ㄹ部分은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
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 外交에서의 自主”라는 自主
性의 部分이다.
- 맑스-레닌主義의 A, B, C, D는 北傀의 “自主” 때문에
自然히 採択되지 않는 部分이다.



다. 主体思想의 理論体系

(1) 主体思想은 本質→立場→政策으로 体系化된다.



4 . 主体思想의 具現

가 . 主体思想의 絶对化

(1) 政治가 모든 領域을 支配

- "북한 정치에 관한한 정치가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가 될 수 없다. 남북한이 그 역사, 전통, 문화적 측면에서 그렇게도 동질성 (Homogeneity)을 갖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4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극단적인 사회의 이질화가 북한측에서부터 일어난 것은 그 사회에서는 정치가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로 군림하여 타의 모든 분야를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Glenn D. Paige, [Rediscovery of Politics] in Montgomery, John D. and Siffin, William eds., Approaches to development; Politics, administration and change, McGraw-Hill, 1966)
-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은 당의 조직사상, 이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정치사건 , 1973, 264 페이지)
- "우리당의 주체사상은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한 지침이다" (김일성 저작선집 , 4 권 , 533페이지)

— “우리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 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7 페이지)

나. 主体思想의 “自主路線”

(1) 主体思想을 政治分野에 具現한 것

— “자주로선은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정치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정치활동에서 우리당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립장과 방침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철학사전, 479 페이지)

(2) 맑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

— “맑스-레닌주의를 자기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 이론을 작성하는 것이다. (철학사전, 479 페이지)

— “매개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 이론을 작성하며 그것을 실천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당의 지도이론을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

할 수 없습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 4 권 , 534 페이지)

(3) 國內政治의 獨自性 發揮

— “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

……로선 및 정책수립과 그 집행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로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때에는 창발성도 낼 수 없고 옳고 그른 것도 가질 수 없게되며 온갖 기회주의적 편향을 다 범할 수 있다 ”

(철학사전 , 480 페이지)

— “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과 건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일성 저작선집 , 4 권 , 535 페이지)

(4) 對外的 平等權 및 自主權 發揮

— “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민족국가들, 특히 형제나라, 형제당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자주로선의 근본 요구이다 ”

(철학사전 , 480 페이지)

- "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김일성 저작선집 , 4 권 , 535 페이지)

다 . 主体思想의 " 自立路線 "

- (1) 主体思想을 經濟建設分野에 具現한 것 .

- "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당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립장과 방침을 밝혀주는 로선이다 "

(철학사전 , 462 페이지)

- (2) 自力建設精神 發揮

- " 경제건설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그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자기나라와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경제를 건설하며 운영하여 나가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 (철학사전 , 462 페이지)

- " 물론 국제적 지지 성원도 중요하며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서는 혁명위업을 해나갈 수 없다" (철학사전, 463 페이지)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하며 자기의 노동과 국내자원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 223 페이지)

(3) 獨創的 建設精神 發揮

— "경제건설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고 자기나라의 현실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자" (철학사전, 463 페이지)

— "남에게 의존해서 독립하며 남의 덕에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며 또한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3권, 488 페이지)

라. 主体思想의 "自衛路線"

(1) 主体思想을 國防分野에 具現한 것

— "자위로선은 ……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 혁명적 로선이다. 자위로선은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방위력을 건설하여 자기의 힘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려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입장의 구현이며 국방건설과 혁명전쟁의 모든 요구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풀어나아가는 창조적 입장의 구현이다”

(철학사전, 487 페이지)

(2) 全軍 幹部化 推進

— “전군 간부화는 인민군대렬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 장병들이 한등급 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군대렬을 량적으로 급속히 확대할 수 있게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전체 인민이 다 싸울 수 있게 한다”

(철학사전, 488 페이지)

(3) 全軍 現代化 推進

— “전군현대화는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현대적 군사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불패의 것으로 강화할 수 있게하는 중요담보이다”

(철학사전, 488 페이지)

(4) 全民 武裝化 推進

— “전민 무장화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인민을 특히 무장시켜 한손에는 망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긴장한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생산도 할 수 있고
전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철학사전 , 488 페이지)

(5) 全国 要塞化 推進

—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어
느때 어디로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일겨에 물리칠 수
있도록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것이다”

(김일성 저작선집 , 4 권 , 363 페이지)

5. 主体思想의 效果와 逆效果

가. 主体思想의 效果

(1) 主体思想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이데올로기의 一般的 機能과 그로 因한 效果를 얻었다.

- 北傀住民의 同一性 深化
- 北韓住民의 統合에 貢獻
- 金日成一黨의 正統性 浮刻
- 大衆의 政治指針 役割
- 公共活動의 目標提示
- 權力配分에 直接的 影響
- 海外로 誇張宣傳

(Wriggins, W. Howard, The Rulers Imperativ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P. 129-137)

(2) 이는 다시 南韓에 대하여 宣傳效果를 얻는다.

- 우리 民族意識속에 潛在해 있는 抵抗 民族主義的 感情을 刺戟하여 煽動可能
- 民族自主的 獨立國家의 이미지를 扶植할 수 있는 宣傳性 保有 (김갑철,北韓 "主体思想"에 關한 研究, 韓國 外國語 大學 大學院 : 1976.5 政治學 博士學位 論文, 189 페이지)

나. 主体思想의 逆效果

(1) 外来思想과의 마찰로 創造性 制約 不可避

- " 맑스-레닌주의는.....사회발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모든 사물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34페이지)
- " 주체사상은.....공산주의운동의 원칙에 맞는 것이며 거기서 직접 흘러나오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19페이지)
- 이상의 논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내에는 각국 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46페이지)는 김일성의 주장에 배치된다.



고로 金日成의 処地에서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을 크게 超越할 수 없으므로 創造性에 스스로 制約을 免치 못한다.

(2) 劃一思想으로 住民의 愚民化

— "대중에게 옳은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가리켜주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조직지도하는 탁월한 수령의 정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도, 조국과 민족의 통성발전도 생각할 수 없다……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진수이다"

(철학사전, 377 페이지)



劃一思想, 唯一思想의 束縛속에서 思想的 自由가 없고, 思想的 自由가 없는 以上 創意力이 發揮될 수 없음.

(梁啓超, 新民說, 「論進步」)

(3) 두개의 上典때문에 自主性 制約

— 中·蘇間의 理念 및 國境紛爭으로 北傀가 多少나마 超然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두개의 上典과 北傀間의 三角關係는 超然要素 以外에 牽制要素도 共存함.

(이는 北傀의 侵略的 對南政策을 中·蘇가 牽制한다는 累次에 걸친 新聞報道를 通해 엿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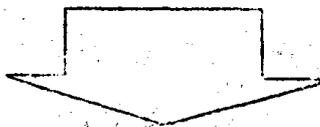
(4) 自力更生의 限界로 對外依存 不可避

—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이다. 강력한 자립경제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한 정치적 자주성이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나라의 물질적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제힘으로 꾸려나가야 경제적으로 외세에 예속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평양방송, 1977.10.10)

— 北韓은 人口過少, 험한 地勢, 落後된 技術로 因하여 天然 資源과 勞動力面에서 周辺 國家 특히 南韓에 比하여 越等한 劣勢임!

— 열세와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돌격대라는 노역 조직을 만들어 “대대, 중대, 소대, 분대간에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성적내기를 다그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78.1.5)



— 결국 反撥的이고 兇惡的인 立場에서 創案한 自力更生은 우격다짐 政策인데 強制勞動을 強要하는데도 限界가 있으며 中·蘇로부터 받고 있는 적으나마의 援助를 拒否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自力更生은 밖에 부닥쳐 政治的 自主의 試 圖가 어려움.

6. 結論 및 展望

가. 主体思想의 虛構性의 逆機能

(1) 北韓住民의 非自主·非創造性

- “ 김일성 동지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진수이다 ”
(철학사전, 377 페이지)

(2) 金日成 偶像化로 住民의 傀儡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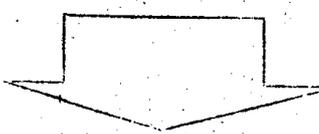
- “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20 여섯 상 장구한 기간 항일 혁명투쟁을 벌리시여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동지 김일성동지 ” (정치사전, 157 페이지)
- “ 우리 인민들은 이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를 부를 때마다 웃것을 여미고 송엄한 마음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즐기 즐기마다에, 압록강의 구비구비마다에 어리어 있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엄숙히 돌이켜 본다 ”
(정치사전, 161 페이지)



住民은 하늘만 쳐다보는 全近代的 農民이나, 父母의 눈치만 살피는 어린애격의 受動的 허수아비로 転落.

나. 主体思想의 将来

持 続 幫 助 要 因	持 続 沮 害 要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 对立, 共產圈 分裂 - 緊張緩和, 危機意識 減少 - 共產主義 思想体系 分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그마티즘과 排他性 - 産業化를 통한 開放化 - 南北關係 平和解決 要請 - 後繼者와의 完全一致 不可



○ 将来展望

- 持続幫助要因과 持続沮害要因을 比較, 分析해 볼 때 北韓 産業化의 客觀的 要請과 金日成 主体思想의 맑스-레닌主義 에서의 異端性 및 金日成 死後 北韓 共產集團內의 새로운 權力鬭爭의 不可避性 등으로 미루어 金日成 主体思想은 金日成 当代에 限定된 것이라고 判斷됨.